

# 업토버 랠리 시작?... 비트코인, 10월 하락분 만회하고 상승세

(Up+October)

美 대선 기대감에 나흘 사이 11% ↑ 중동 위기 극복 후 강제장 진입 신호 2019년부터 5년 연속 업토버 효과



10월 진입과 함께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 5% 넘게 상승하면서 이달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대감과 마운트곡스 상환 연기 등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 10월 강제장인 '업토버' 랠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6만6400달러까지 회복하면서 이달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단행 후 회복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초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6만달러까지 밀려났다.

이후 미국 고용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크게 개선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미 고용둔화 우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 등이 악영향을 주면서 지난 11일 5만9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나흘사이 11% 넘게 상승한 배경에는 마운트곡스 상환 연기

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꼽힌다.

마운트곡스는 지난 7월부터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하기 시작해 오는 31일 상환을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상환 계획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비트코인은 현재 28억달러(한화 3조8000억원)으로 상환이 연장되면서 약재가 견어졌다는 평가다.

또한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 11~13일(현지시간) 하버드 CAPS-해리스폴이 등록 유권자 3145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집계됐다.

오차범위는 ±1.8%포인트(p)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p까지 벌어졌지만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게 나온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親) 가상자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은 '트럼프 자산'으로도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미국 대선 직전에 비트코인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올해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상승 기대감에 업토버(Uptober) 랠리가 이미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토버는 올라간다는 뜻의 '업(Up)'과 10월의 '옥토버(October)'를 합친 말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세는 평균 23% 상승했고 지난 2014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는 5년 연속으로 업토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거부터 10월 가격 추이를 분석해보면 10월 초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15일 이후로 가격 반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후보들의 선거 승률과 비트코인 가격 간 상관관계가 이전보다 줄어 들었다"며 "두 후보 모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비트코인 같은 대체자산이 주목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국민연금 지분 7.83%, 고려아연 경영권 운명 가른다

양측 모두 과반수 지분 확보 실패 MBK 연합, 전체 지분의 38.47% 최윤범 회장측·우호 지분 33.99%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서 5.3%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MBK연합이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마무리하며 고려아연 전체의 38.47%, 의결권 기준 48%를 확보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측의 우호 지분 등 33.99%를 넘어섰지만 양측 모두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7.83%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

금이 주총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MBK 연합은 결제일인 17일 주당 83만원에 청약 지분을 매입할 방침이다. 당초 예정했던 목표 매입 수량엔 못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진 못했지만 향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회 장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사수는 현재 13명으로 MBK연합이 신규 이사를 12명 이상 선임하면 기존 이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다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의 의결권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결

과를 쉽게 예측하긴 힘들다.

현재 MBK연합의 공개매수가 종료되면서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MBK·영풍 38.47% ▲최윤범 회장 및 우호지분 33.9% ▲국민연금 7.83% ▲자사주 2.4% ▲기타주주(17.4%)로 구성된다.

23일까지 진행되는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 되면 지분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주당 89만원에 최대 물량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MBK연합이 확보한 5.34%를 제외하면 현재 남은 물량은 14.66%로 추정된다. 최 회장과 손을 잡은 베인캐피탈

이 매입하는 2.5%를 제외하면 최 회장 측이 얻을 수 있는 자사주 물량은 12.16%이다. 다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결국 주총 표대결에 필요한 의결권을 기준으로 ▲MBK·영풍 45.2% ▲최윤범 회장 및 우호지분(베인캐피탈 포함) 42.5% ▲국민연금 9.16%이 된다. 양측의 차이가 2.7%포인트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이들의 경영권 분쟁도 정해질 전망이다.

아직까지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한다는 점

을 강조한 만큼 국민연금의 선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앞서 올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영풍과 고려아연의 표대결에서 고려아연 측 안건에 모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고려아연의 미래 신사업과 중장기 기업 가치 향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임직원 일동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켜낸다는 일념으로 절대로 해외에, 그것도 중국에 우리의 기업을 팔아 넘길 수 없다는 필사의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비철금속 세계 1위 고려아연'을 '친환경에너지 소재기업'이라는 더 큰 세계 1위로 키워,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논란... '안전조치 부실' 도마 위

### 한노위 국감

추락방지 조치 미흡에도 작업 재개 심의 과정에서 안전관리 부족 질타

뉴진스 하니, 따돌림 '논란' 직접 증언 "하이브,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15일 열린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오션 사업장의 사망사고와 관련, 당국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간간과 그물망 등이 부실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해제 결정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작업중지된 9개를 전부 다 현장 점검 하지는 못했다. 전날부터 현장 감독이 진행 중이고, 중점적으로 확실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작업중지 이후 안전간간이 부실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틀면서 미흡한 안전조치에도 작업중지가 해제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준희 부산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감독관 20여 명이 현장근로 감독을 다시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차 심의를

통해 작업중지가 해제됐는데 현장은 여전히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공장으로 보인다"면서 "한화오션이 심의 관련 자료들과 심의위원회 명단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1월 12일 가스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4일에는 협력업체 소속 작업

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1일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 측으로부터 받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검토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특별 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 총 9일 동안의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555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이고 사용중지 2건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간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

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기계·설비 미사용 등 위반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따돌림' 논란 '과 관련해 직접 증언했다. 어도어 대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증인으로 자리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해당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니는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하실 것들이 더 있었다"며 "앞으로 미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대표는 "하니 씨의 주장을 믿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